

“고려화불로 전통문화 맥 잇는다”

혜담 스님 ‘고려화불’ 초대전



“고려화불을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잊혀진 불교 역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양에도 상징하는 심오한 의미가 있으며 입체감은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모양도 같이 변화죠. 이 모두가 우리 조상들이 빚어낸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700년의 시간을 넘어 고려화불의 위대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속초 계대사 고려화불연구소 이사장 혜담 스님이 ‘단절되어 잊혀진 위대한 문화유산 大 고려화불 초대전’을 개최한다. 2월 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6-7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복원 작업을 거친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스님은 매일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작업을 하며 작품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런 작업을 통해 스님은 ‘500나한상’ ‘관경 16관 변상’ ‘수월관세음보살’ ‘열반상’ 등을 완성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혜담 스님은 수월관세음보살은 3년의 작업을 통해 5m의 작품을 완성시켰다. “어느날인간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 화현이 나타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 해 3년을 걸려 작품을 완성했어요. 워낙 대작이어서 법당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로로 눕혀서 작업을 하다보니 제대로 작품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류를 찍으며 외사자 작품을 세워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오백나한상 역시 스님이 각고의 노력을

기운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백나한과 공양발원 하는 100여 대종을 합하면 600여 명이 한 작품안에 들어간다. “그동안 오백나한도는 엄두가 나지 않아 부분도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발심을 해서 오백나한도 전체를 그려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 표정도 몸짓도 다 다른 오백 나한도를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어 쌀 알 하나하나로 인물수를 세면서 작업했죠”

혜담 스님은 지난 40여년 동안 고려화불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그렇다면 왜 스님은 이 오랜 시간 고려화불에 매달려 온 것일까? 이에 대해 스님은 잊혀진 우리 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5m 고려화불 3년 모사 완성

오백나한상 전체 복원에 ‘심혈’

“고려화불은 고려시대 찬란한 불교문화 유산이자 종교를 초월한 선조들의 예술혼이 깃든 작품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보다 앞서 시작된 고려문화 전성기에 조성된 화불은 세계미술사에서도 빛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예술로 그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 등으로 방치 되다가 결국은 해외로 160여 점 유출되고 국내에는 20여 점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고려 화불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국내 작품 외에도 다양한 불교 국가의 불화도 함께 선보인다. 인도 서역 9세기 작품은 물론 중국 9-10 세기 작품 일본의 13세기 작품 등을 복원했다. 또한 4월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를 갖는다. (053)606-6114 정혜숙 기자



오백나한상



수월관세음보살상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꽃병→만병 ⑤

만병에서 무한한 영기문 용솟음 친다

滿瓶



① 강화도 정수사의 어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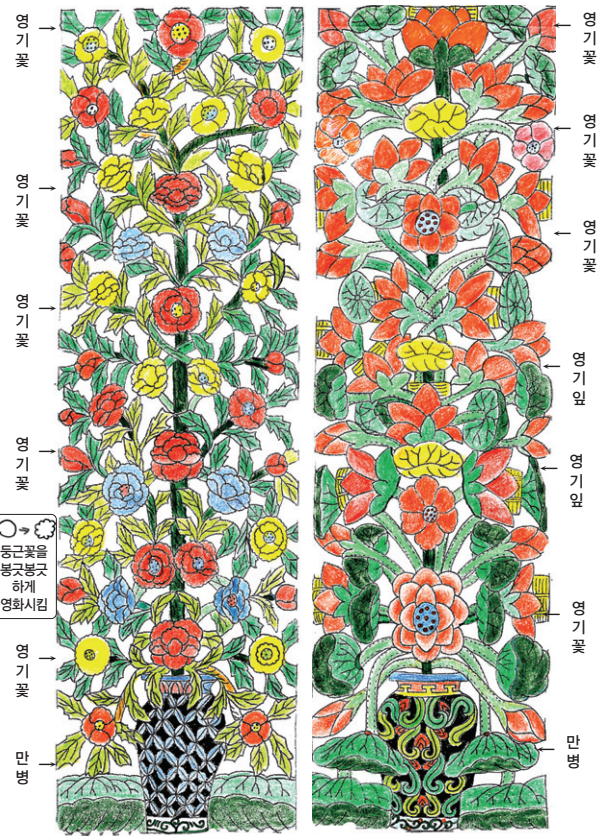
② 만병1



③ 만병 2



④ 내부 전정 네 귀의 만병



⑤ 두 가지 만병의 채색분석

대생명력이 가득 찬 만병의 도상은 만물생성의 근원을 상징하는 만큼, 실로 무한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몇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다양한 표현이야말로 만병의 인식을 점점 깊게 만들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만병에는 전형적인 추상적 영기문들이 발산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보이는 꽃들도 많다. 그 대표적 예들이 ‘연꽃’과 ‘모란’이다. 용과 마찬가지로 연꽃과 모란을 십년 가까이 공부하여 오는 동안, 조형미술에 표현된 연꽃과 모란이 실은 현실에서 보는 연꽃과 모란이 아니라는 진실을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분석하면서 확인하면서 환호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그 문제는 증명 과정이 복잡하고 길므로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조형미술에는 현실에서 보이는 사물은 하나도 없다’ 이 무슨 이상한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테지만 이 연재를 읽어가는 동안 점차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강화도에 가면 조선 전기(前期)의 아름다운 건축의 정수사(淨水寺)라는 고찰이 있다. 왜 정수사라고 했을까. ‘정수(淨水:정화된 물)로 세상을 정화시킨다는 뜻이 담겨있으니 절에 그와 관련된 도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대웅보전의 꽃살문은 유명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중앙 어간(御間) 네 문쪽에 향아리에서 끓인 것이 긴 꽃들이 연이어 올라가고 있어서 누구나 꽃병이라 부른다. 최근에 새로 거칠게 단청을 하여 옛 맛이 없어졌으므로 그 이전의 사진을 신는다.(그림 ①)

꽃살문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두 문쪽은 병 자체에는 추상적 제2영기문이라 그려져 있고, 다른 병에는 연꽃모양 영기문에서는 제3영기문 영기문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니 벌써 만병의 조형이 심상치 않다.(그림 ②, ③) 그 가운데 두 만병에서는 위에서 본 큼직한 영기꽃이 있는데 가운데에 씨방이 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인 씨앗들이 들어있는 씨방이 중요한 것이어서 정면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 만병에는 중심축이 있어서 연꽃 - 연잎 - 연꽃 - 연잎들이 교대하며 위로 뻗어 올라가고 그 연

꽃과 연잎에서 여러 갈래의 영기문이 사방으로 확산하는 광경이다.(그림 ⑤) 줄기에 가지들이 있으므로 누구나 서슴치 않고 연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니다! 연꽃이 연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이 진실을 볼 수 있는 개안(開眼)을 성취하리라. 자세히 꽃살문의 그림을 뜯어가며 읽어보면, 그 전개과정이 생명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대한 영기문이며 우주 혹은 생명수이며, 바로 이 생명수에서 만물이 탄생한다. 원래 새나 나비가 그 사이사이에 있어서 생명생성의 광경을 보여주나 여기에서는 생략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는 조형언어를 배워가면서 차차 익히게 될 것이다. 이 연재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형언어와 그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과 복습을 하여 영어를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꽃이나 연꽃은 제3영기문 꽃받침이 원래 없으니 제3영기문 영기문에서 연꽃, 연봉, 연잎이 생겨나는 것인데 연꽃이 실제로 이렇게 영기문의 조형원리에 맞게 전개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양쪽의 두 문쪽을 보면 모란꽃 줄기가 수직으로 위로 솟구치며 가지들을 치면서 수많은 모란꽃을 피우고 있다. 꽃잎이 붕붕긋하여 모두가 모란이라 부르지만 영화시킨 영기꽃이다. 이 영기꽃 또한 중심에 큰 줄기가 있어 우주 혹은 생명수의 성격을 띤다. 나의 말을 확인하려면 오랜 인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상을 선묘(線描)하여 반드시 채색분석(彩色分析)해보아야 그 생명생성의 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0년 동안 채색분석을 4000점 가까이 했으니 나의 분석방법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만병을 빗천장에서 볼 수 있다. 빗천장 네 귀에도 각각 만병이 있고 만병으로부터 영기꽃 줄기가 길게 뻗어 나오고 있다.(그림 ④) 왜 이렇게 정수사에는 법당의 안쪽에 그렇게 수많은 만병을 조각하여 놓았을까? 꽃살문은 어느 경우나 ‘영기꽃과 씨방’이 주제이다. 이것 절 이름을 ‘정수사(淨水

寺’) 라고 이름 지은 까닭은 알 것이다. 꽃병이라고 하면 절 이름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절 이름을 왜 정수사라고 지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 만병이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만병이란 말은 purmaghata, 즉 ‘가득 찬 병’이란 뉘앙스를 띄어 한 것으로,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규정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다. 왜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고대인의 지혜가 있다. 나의 연구에 따르면 만병 안에는 여러 가지 생명의 근원이라 할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만병 안에는 ‘물’ ‘보주’ ‘산호’ ‘영기’ 등 만물생성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전경에 ‘만병’ 이외에 ‘현병(賢瓶)’, ‘선병(善瓶)’, ‘덕병(德瓶)’, ‘만병(滿瓶)’, ‘여의병(如意瓶)’, ‘본낭가타(本囊伽陀)’ 등으로 번역하였으므로 문헌으로는 혼란스러워 그 번역 용어의 참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며 만병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상상도 할 수 없다. 수실(Soothil)이 편찬한 《중국불교용어사전》에서 처음으로 번역어 발음인 ‘푸루나가타’를 ‘본낭가타(本囊伽陀)’라고 번역하여 경전에도 쓰였음을 처음 알았다. 그러므로 문자언어로는 이 말의 뜻이 올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형언어로 이루어진 조형미술에서는 다양한 도상으로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형언어를 읽지 못하고 답답한 문자언어에서 찾으려 했으므로, 지금까지 만병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꽃병이라 불러왔던 것이다. 만일 조형미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만병의 의미를 알았겠는가.



강유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 적하수오 : 1 kg 3만원부터
- 적하수오 고풍장 된장 : 1 kg부터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 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종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 농장: 010-8442-4444 (상당)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목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조사祖師의 문門 안에 들어 불조佛祖의 근본 체득하는 길!

“생사가 없는 줄 아는 것이 생사 없음을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을 체득한이 생사 없음에 계합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계합함이 생사 없음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니라.”

출간 즉시 2쇄 들림!

생사해탈의 관문 《신문찰요禪門撮要》

모범 찬주·건우회 역음
변형크리온판 | 흑백 | 452쪽
15,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본래성품 깨달아 인간성 회복하는 핵심 선禪법문

《신문찰요》는 한국 선종의 중흥주인 경허(1849-1912)선사가 엮은 책으로, 중국과 한국불교 선문의 중요한 어록을 한 데 모은 대표적인 선어록. 혜암선사가 편역한 달마해백론(達磨海白論), 달마관심론(達磨觀心論),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 보조심심직설(普照真心直說), 선경어(禪經語)의 한문 원문에 토를 달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한자 마다 한글 음을 달아 독송하기에도 편하다.

출판 및 보급(특별발간) 문의 02-2632-8739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